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4호 【루계 제26188호】 주체107(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 조선로동당창건 73돐, 《ㅌ.ㄷ》결성 9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페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부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단마르크의 공산당 위원장과 국제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민족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씨야정화 및 통일당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총인민통맹당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제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과 국제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자,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이딸리아정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련합당 전국위원장, 남아프리카공산당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총비서,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몽고로동당 총비서, 민주몽고공산당 총비서, 민주몽고로동당 총비서, 통일된 민주몽고인협악전국위원장,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총비서, 에질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공산당 전국위원장과 정치 및 국제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전국지도부 총비서,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형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 우루과이혁명적공산당 총비서,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과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또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딸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쓰르비아공산당 국제비서, 흐르바쯔까사회로동당 국제부장,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민주꼴고 루뽀바주의통일당 상임비서,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김정일키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총서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네팔, 말레이시아, 만마, 몽골,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쟈, 라이, 파키스탄,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벌가리아, 벨라루씨,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뽈스까,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세네갈, 꼬트디봐르, 민주꽁고, 앙골라,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띠나,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10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당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돌보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ㅌ.ㄷ》에서 개척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보다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뒤르끼예조국당 위원장,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부위원장과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해보느라면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또한 지금 나라사정이 의연 어렵고 긴장하며 적대세력들이 제재책동에만 광분하고있지만 모두가 대중적영웅주의, 전인류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조선의 발전잠재력, 조선식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관광지구의 교통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이 마련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중국의 환구망, 해외망, 로씨야의 신문 《아르구멘띠 이 팍띠》, 인터네트신문 《로뜸》,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인디아신문 《오우션 뉴스 포인트》,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NHK방송, 도이췰란드발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람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이딸리아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아의 따쓰통신, 인디아의 ANI통신, 미국의 UPI통신,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결성식이 그이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2일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의 여러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와짐 꾸지민이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접출한 위인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7돐이 되여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는 파탄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그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로씨야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위인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

김정일대원수 서거 7돐 스위스회고위원회결성식이 3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뵈체르가 선출되였으며 성명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큰 힘을 넣어

각지 당조직들에서

각지 당조직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도하는 대중운동인것만큼 마땅히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여러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단위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올해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대중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서들과 각급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가 나온 후 도적으로 10여개의 단위들이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명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철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직동청년탄광이 대중운동에서 기관차가 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현해나가고있다. 이 파장에 광무직장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으며 탄광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전형단위가 되였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부부장이상 일군들에게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걸기한 도급기관과 명도업적단위들을 기본으로 하여 본보기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매월, 매 분기마다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통보하면서 일군들이 담당한 단위사업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게 하고있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만 하여도 세포군산림경영소 포제양보작업반을 비롯한 여러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1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수여기준에 도달하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당앞에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이끌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기세드높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식의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자강도당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서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모든 일군들이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조직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사이에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맡아 지도하는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걸기한 단위들에 나가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알아보고 나타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고있으며 목표를 수행한 단위들에 대한 추천과 관정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가고있는 각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해 사상, 기술, 문화의 세족의 붉은기는 더욱 세차게 휘날리고있으며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은 남김없이 분출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고알루미나내화물생산공정 확립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최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고알루미나내화물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내화물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확립된 공정에서 많은 량의 고알루미나내화물을 생산하여 인발강관생산공정과 선재압연생산공정의 카델로헌대화공사장들에 보내주었다.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서 내화물생산의 주체화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고알루미나내화물생산공정을 확립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실험설비들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우리 식의 고알루미나내화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필요한 내화물재료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데 이어 생산공정과 설비들에 대한 설계도 빠른 기간에 완성하였다.

공무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많은 부속품을 가공하였다. 내화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짧은 기간에 공정확립에 필요한 설비조립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고알루미나내화물생산공정을 확립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내화물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군들은 내화물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내화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존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고알루미나내화물생산을 늘이고있다.

김학철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무궤도전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낟알털기전투성과 확대

전국적으로 낟알털기실적 79%계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마지막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8일현재 낟알털기실적은 79%계선에 이르렀다.

각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결속한 농장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단위를 도와주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 속에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농기계리용률을 최대로 높여 낟알털기를 하루빨리 결속하도록 총화평가사업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사상의 포문이 열리고 벼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수천대의 탈곡기들이 만가동하는 속에 태천, 향산, 구장군을 비롯한 9개 시, 군의 230여개 농장들에서 낟알털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도적인 평균실적은 8일현재 90%계선을 돌파하였다.

황해북도의 협동벌들에서도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낟알털기를 계획대로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면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게 하고있다. 시, 군, 농장들에서는 낟알을 털어내는족족 수매를 따라세우기 위해 수매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륜전기재들을 동동원하고있다.

결과 8일현재 사리원시, 린산, 서흥군을 비롯한 13개 시, 군의 근 200개 농장들에서 낟알털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도적인 평균실적은 94%계선을 돌파하였다.

함경남도에서 낟알털기전투가 마감단계에서 본때있게 추진되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를 하루빨리 결속함으로써 뜻깊은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키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안고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 이동식탈곡기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는 가운데 도의 낟알털기실적은 8일현재 97%계선을 돌파하였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지니고 알곡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하여 낟알털기를 결속한 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새 학년도 민들레학습장생산계획 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력으로 살아나갈 각오를 가져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지난 10월 올해 년간계획과 새 학년도 민들레학습장생산계획을 전부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올해 10월까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새 학년도 학습장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내각과 상업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장에서는 지난 10월에 민들레마크를 단 렬차들과 자동차들에 학습장들을 가득 실어 각 도들에로 전부 떠나보냈다.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 라선시에로 가는 렬차수송이 이미 끝났으며 각 도들에 대한 민들레학습장수송이 전국적으로 완료되였다. 상업성에서는 수송된 민들레학습장들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해당 당조직들과의 련계밑에 책임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평양시와 각 도의 상업망들에서 민들레학습장공급을 진행하고있으며 각 도들에 있는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대학들과 산간마을학교들에 이르기까지 민들레학습장이 빠짐없이 공급되고있다. 상업성에서는 2019년 새 학년도전까지 민들레학습장을 수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있다.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질좋은 민들레학습장들이 현지에 가닿는족족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빛나는 조국을 받들어올렸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창조의 나날에 꽃펴난 뜨거운 충정의 이야기

만사람이 매혹되였다.

지난 9월 9일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수십동안 연 수백만명이 관람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기념비적대집작으로 지구를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5살 난 쌍둥이출연자들과도 말해보았다.

고향도 직업도 나이도 각각인 근로청년들과 학생들, 가정부인들이 한무대에서 함께 켈치는 춤가락에도 곧혀보았다. 배경대의자에도 앉아보았고 온 가정이 공연에 참가한다는 자랑넘친 이야기를 들으며 밤거리도 함께 걸어보았다.

전국각지의 남녀로소 수만명이 모여 온 나라가 다 있는것만 같던 5월1일경기장에 켈치진것은 황홀하고 눈부신 화폭뿐이였지만 그 화폭마다에는 결전장에서의 위훈과도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담들과 참된 인간의 향기가 진하게 스며있었다.

우리 국가의 70년과 빛나는 미래를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비쳐주는 거울과도 같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눈으로는 다 볼수 없는 그 뜨거운 인민의 모습, 인민의 마음을 온넋으로 안아보며 우리는 조국을 떠받든 위대한 힘을 절감하였다.

충정의 혈맥—그리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성대히 진행된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뜨게 하였다.

방방곡곡에서 선발된 우수한 예술인들, 체육무용지도교원들과 체육무용소조원들, 재능있는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환희에 넘쳐 평양으로 달려왔다.

댕기예술체조와 체육무용 《새 조선의 숨결》만 보아도 근 30개 단위에 출연자는 1,500여명, 평양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모두의 목소리는 꼭같았다.

《주석단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제일 앞자리에 한발자욱이라도 더 가까이 서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는 한결같은 그 지향은 한점의 티도 없는 가장 훌륭한 공연을 우리 원수님께 보여드리고싶은 꿈같은 소원으로 승화되였다.

학생들의 어머니구실까지 하느라 남보다 몇곱으로 힘든 지방의 체육무용지도교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것은 학생들을 재우는것이였다. 매일의 훈련을 위해 자야 한다고 꾸중도 하고 얼려도 보며 몇번이나 불을 끄고 갔지만 학생들은 또다시 불래 일어나 려관의 마당과 복도에서 뒤떨어진 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훈련하군 하였다.

한 학생의 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중대가 힘을 합쳤고 교원들은 교원들을, 학생들은 학생들을 도와 한마음, 한식솔로 뭉쳤다. 이름을 알든 모르든, 어느 중대이든 환자가 생기면 그는 모두의 첫째가는 관심사가 되였고 친혈육이 되였다. 영광의 그날 앞당겨 우리모두 한자리도 비우지 말자는 그 진정에 받들려 매 장, 매 경이 하나하나 완성되여가던 어느날 서평양려관의 한 방에서는 심각한 모임이 있었다. 제대로 수행 못한 동작을 두고 스스로 모여앉은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는 자책감에 젖어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체육무용의 시초를 열어놓은 학교라고 높이 평가하신 삭주군 청수고급중학교의 체육무용소조원들이다. 다른 학생들보다 훈련에서 뒤지면 우리는 아버지원수님앞에서 정말 머리를 들수 없다. 동무들, 더 많은 땀을 흘리자. 그 땀으로 우리의 표식점들을 보석처럼 빛내이자. …

표식점, 경기장바닥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하나의 대본에 따라 하나의 흐름, 하나의 률동을 창조한 출연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하나의 작은 점이 아니였다. 그들 누구에게나 표식점은 목숨바쳐 지켜야 할 나의 진초였으니 얼마나 뜨겁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그 무수한 표식점마다에서 꽃처럼 피여났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발키와 세심한 관심속에 태여난 제2장 제3경 《우리를 보라》의 군도수들은 대부분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출연하였던 근로녀성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온 경기장의 각광을 모으며 공연하던 처녀시절이 그리울 때면 사진첩을 펼쳐보군 하던 그들이 9월 9일을 눈앞에 두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출연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들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35살, 40살의 녀성들이 1번수가 되여 불과 며칠만에 작품을 완성하였을 때 처녀들 못지 않은 그들의 기백있고 매력있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오래동안 공연무대를 떠났던 저들이 어떻게 그 모든 세부동작들을 그처럼 손색없이 멋있게 할수 있을가.

그 비결을 두고 그들은 이렇게 걱정을 더 놓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불러주신 그 믿음,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이 자신도 믿지 못할 기적의 힘을 낳았다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본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남긴 제2장 제2경 《위대한 수호자》의 출연자들은 무대에 등장해서부터 퇴장할 때까지 천폭속에 있다.

하나로 이어진 수십개 천폭, 그속의 1,000여명이 암전속에서 자기의 형상자리길을 찾는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쉽게는 상상하지 못할것이다.

례년에 없던 삼복철폭양이래 천폭속에서 팽란하는 파도와 눈보라를 형상할 때면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여난 출연자들은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따라부르며 이렇게 자신들을 채찍질하였다고 한다.

우리 때로 힘들어서 파도의 파장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 헤쳐가신 세찬 풍랑길을 잊는다는것이고 잠시라도 쉬려 한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길에 흘리신 애국헌신의 땀을 잊는다는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가슴에 안고 동무들아, 원수님 모실 그날 위해 승전과 발걸음을 합치자!

마침내 기다리고기다리던 영광의 시각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불망 그리던 우리 원수님을 뵈올수 없었다. 그이를 뵈옵는 그 한순간을 위해 백수십일을 하루와 같이 바쳐왔건만 야속하게도 그들은 천폭속에 있어야 했던것이다. 그 천폭속에 틈이 생기면 우리 원수님을 받드는 충정에 틈이 생기기에 출연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천폭으로 자기들을 더 힘껏 감싸안았다.

우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형상한 작품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렸다면 그이께서 보신 우리모두의 모습도 다 훌륭한것이며 원수님 뵙고싶던 우리 소원도 풀리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 심정을 안고 제3장 제2경 《대진군앞으로》의 출연자들은 어둠속에서 전지봉화의 불빛이 한점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병기창을 만들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수리하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스스로 수리조를 꾸고 밤을 새우며 하나하나 기재들을 정비하였다.

얼마나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새 세대들인가.

새 세대, 가슴뭉클 외워볼 때면 어린이장의 나이린 출연자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수만명 출연자들속에 제일 나이가 어린 외바퀴자전거를 타는 4살짜리 어린이들은 공연전기간 한번의 실수도 놀랐다고 한다. 아이들과 꼭같이 달리며 춤을 들여 소도구들을 창안완성한 60대의 녀성안무가는 하나같이 순결한 우리 아이들에게서 늘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성장의 자욱이 력력히 비낀 일기장들을 보여주었다.

계속계속 바라보고싶은 주석단의 그 자리에 언제나 아버지원수님께서 서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건마을소학교 5학년 학생 최영룡, 그의 일기장을 면지며 우리는 매일과 같이 일기를 쓰면서 원수님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어린이장출연자들모두의 모습을 보았다.

소낙비때문에 훈련을 못하면 어쩌겠는가고 걱정하며 날씨가 참 밉다고 하늘을 탓하던 철부지들의 목소리에, 스르르 감겨지는 눈을 서로서로 손으로 떠올려주며 판통을 앞둔 순간까지 훈련을 하던 그 어린것들의 모습에 안무가들과 교원들이 때없이 눈물을 쏟은적은 그 얼마였던가.

그 모든것을 그림에 담는다면 아마도 그 제목은 《그리움》일것이다.

수만명 출연자들은 누구나 지난 9월 3일 비가 쏟아져내리던 그밤을 잊지 못한다.

오늘은 작품전체를 보려고 나온것이 아니라 훈련중에 있는 장, 경들을 보면 된다고 하시며 깊은 밤 너무도 뜻밖에 경기장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 시각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집으로 돌아섰던 수많은 출연자들은 긴급련락을 받게 되였다.

《빛나는 조국》출연자들은 경기장으로 급히 도착하라는 짧은 그 말은 룡라도로 향한 모든 길을 삼시에 사람바다, 차바다로 떠워버렸다.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부모들은 무작정 달리는 차를 멈춰세웠다. 어떤 학생은 옆집아저씨의 자전거를 타고 또 누구는 달리기를 해서 평양시 제일 끝에 사는 출연자까지 빠짐없이 모두 모여왔다. 출연준비를 갖추고 하염없이 주석단쪽을 우러르던 수만명 출연자들의 절절한 그 눈빛, 그것은 바로 그리움이였다.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열렬해지고 진함없는 조선의 힘—그리움,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이 나라 인민의 충정의 혈맥, 일심단결의 밑뿌리였다.

우리는 전사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창조과정은 그대로 새로운 속도, 새로운 기적이 태여나던 나날이였다.

사실 창작가들은 물론 출연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전과는 대비할수없이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공연을 창조해보기는 처음이였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랐고 경험있는 창작력량도 부족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마지막공연을 했던 그때로부터 5년만에 또 하나의 새로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만들어야 했던 창조집단에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것은 출연자들이 완전히 생동이들이라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과 능력 그 모든것을 초월하여 비상한 속도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창조하였다.

한밤에도 오시고 비내려도 오시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수정방향으로부터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지혜와 보숨을 주시며 배심있게 내밀라고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못해낼것이 무엇이며 두려울것이 무엇이랴.

결사관철, 창조집단은 오직 이 하나의 정신으로 뭉쳐 일떠섰다.

서장 《해솟는 백두산》, 제2장 제2경 《위대한 수호자》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의 3차원화상처리를 맡은 창작가,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과 20여명, 그 작업량은 기존공식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방대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개척자가 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최고의 걸작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백수십일의 순간순간을 마지막피땀을까지 다 바쳐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한 월미도방위자들처럼 싸웠다.

한쪽에서 착상하면 다른쪽에서는 콤퓨터에 그 착상을 옮기고 또 한편에서는 종이로 그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미술실의 창작가들이 완성한 새로운 특수무대도안이 그밤으로 하나의 거대한 장치물이 되여 무대에 등장할 때 수만명 출연자들의 의상소도구제작을 맡은 수십명 성원들은 쪄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잠시도 재봉기를 멈추지 않고 돌렸다. 쌓을수없이 밀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해 그들은 맵대신 얼음을 삼켰다. 얼음을 한 천을 머리에 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600밀 군복제작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기아와 동상으로 쓰러졌다가도 의식을 차리기가 바쁘게 일어나 재봉기앞에 마주앉던 항일의 녀대원들을 그려보면서 한벌 또 한벌 의상을 완성해나갔다. 리명순동무는 어느 한 소도구에 대한 물감들이기작업을 혼자 맡아나섰다.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꼬바기 날을 밝혀 근 1,000개나 되는 소도구들을 완성하고났을 때 그는 전혀 일어설수 없었다. 너무도 오래동안 한자세로 앉아 일에 열중하다보니 다리가 퍼지지 않았던것이다. 어느 한 작곡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크나큰 믿음이 놀라운 창작속도를 낳게 했다고 하면서 힘겨웠지만 벅차고 보람찼던 나날을 긍지높이 추억하였다.

이번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창조집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이 과시되였다고, 수정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짧은 기간에 손색없이 수정하군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하다고, 정말 전투력이 있다고 분에 넘친 치하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하늘같은 그 믿음을 받들어 하나의 생명체가 된 창조집단은 아침에 문화대본과 연출 등 수정작업이 진행되면 지녁에는 판통훈련까지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믿기 어려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그 나날 출연자들속에서 창작된 인상깊은 연필화들과 글작품들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기들의 생활을 꾸밈없이 담은 그 소박한 작품들속에는 땀에, 비에 젖은 옷을 말릴새없이 새 작품을 완성하던 잊지 못할 새벽도 있고 훈련만 잘하라고 어린 자식도 집안일도 다 떠맡던 고마운 부모와 남편의 진심도 있으며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온 동지들의 모습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모두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불탔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으로 된다.

한목소리, 한동작의 신비로운 융합으로 무수한 평화폭을 켤치던 배경대 1만7,490여명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그들모두가 꼭같이 지닌 하나의 부름이 가슴을 친다.

전사, 이것은 그들 누구나 자기의 이름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이며 영예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배경대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인민군군인들이 특대형배경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발선 는 한번 불여볼새없이 용접불꽃을 날리던 그때 학생들은 배경책에 더운 땀을 쏟았다.

백수십카드로 되여있는 어떤 배경책은 애리애리한 일부 녀학생들에게는 아름이 벌게 두어웠다. 그 배경책을 켤치자고만 해도 힘든 일인데 대 카드를 팍팍 박력있게, 그것도 단숨에 켤쳐야 하였으니 손가락마다 굳은살이 배기도록 남모르게 훈련했을 그 기특한 모습들을 그려보시라.

이전에는 공연시작전에 진행하던 배경대위력시위도 공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을 떳떳이 모시고싶은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루밤에 10여카드나 되는 색종이작업을 해야 했던 어느날이였다.

배경책의 특성으로 하여 한번에 색종이작업을 할수 있는 항은 기껏해서 3, 4카드, 그것마저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말리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서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음번 색종이작업을 해야 했다.

온 집안의 선풍기는 배경책에로,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온 식구가 배경책 한카드, 한카드에 부채질을 하였다. 그렇게 너나없이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날이면 부모들은 자식들의 어깨에 배경책을 메워주며 곡진히 부탁했다.

《오자를 내지 말거라.》

이것은 당시 평양시의 어느 가정에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모습이였다.

나어린 학생들 누구나 오자는 우리의 원쑤라고 하면서 오자를 없애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고 훈련중에도 오자를 낸 그런 날이면 온 대대가 머리를 들지 못했다.

우리는 학생이기 전에 전사다. 당정책의 선전자이다. 위대한 우리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자.

이것이 바로 배경대를 한모습으로 뜨게 하는 열망이고 신념이였다.

배경대의 위력시위는 만경대, 우리 대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만경대구역대대가 분발하여나설 때 선교구역대대의 학생들은 언제나 우리 원수님앞에서 배경책을 켤치는 심정으로 휴식을 잊고 훈련을 했다. 배경대의 근 30%를 차지하는 락랑구역대대에서는 모범대대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성대히 진행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배경대학생들은 배경대지휘자 리성호동무의 목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6대대 4중대 2소대 32번전사 배경책을 덮고 일어서시오. 이 동무는 얼마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안고 이날까지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순간 격려와 감동어린 박수소리가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학생인 주효일을 향하여 터져올랐다. 효일의 두볼은 어느덧 뜨거운 눈물로 젖어들었다.

군관이였던 아버지, 그가 침상에서도 아들에게 당부한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네 자리를 지키거라.》 하는것이였다. 아버지의 그 당부를 안고 그는 9월 9일 이른아침 5월1일경기장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모시는 대대의 한 성원이 된것을 더없는 영광과 긍지로 여기는 그는 자기의 자리를 결사옹위의 혁명전구로 생각하는 배경대의 한 전사였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던 그 순간 효일이의 얼굴은 비록 배경책뒤에 있었지만 그는 온넋으로 우리 원수님을 뵈웠다. 행복과 격정으로 가슴들먹이는 효일이의 마음속에는 공연전기간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그토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뵙고싶어하던 아버지와 함께 그는 한카드 또 한카드 배경책을 켤치었다.

배경대에 환하게 모셔지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에는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백옥같은 충정이 어려있던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연구사 한재우동무는 새로 건설된 배경대의 방대한 구간을 몇차례나 실측하며 매 좌석에 맞는 배경책의 규격을 하나하나 계산하여 모든 그림과 글발들이 자기 규격과 비률에 맞게 배경대에 새겨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배경대미술실 성원들과 힘을 합쳐 가장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배경대에 모실수 있는 새로운 보정프로그람을 완성하였다.

진정 폭염보다 더 뜨거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을 결사실천하기 위해 건인불발하던 출연자들의 훈련열풍이였고 폭우도 식힐수 없었던것은 그이께 만족드릴 일념으로 피끓는 열화와 같은 심장들이였다.

우리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려달라고 아낌없는 지성을 기울이던 협육들과 당일군들, 일터의 벗들과 이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무대를 더욱 눈부시게 빛내여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조명사들과 장치사들, 출연자들보다 더 일찌기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공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의 길을 달려온 수많은 운전사들, 행사참가자출석부를 만들어놓고 마지막 한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던 이빠트승강기운전공들, 수시로 건강상태를 알아보며 정성다해 치료해주던 의료일군들, 깊은 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출연자들에게 《동지들, 수고많았습니다.》라고 고무해주며 오이랭국을 무어주던 인민보안원들…

그들모두가 출연자들과 어깨겯고 한진초에 선 전사들이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출연자들은 바로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이였다.

지난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화환을 보내주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 박정주동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당에 기쁨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쓰러질수도 죽을수도 없다며 초불처럼 생을 불태운 로연출가, 운명하는 날까지도 우리 원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방도를 열정에 넘쳐 토론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였던가.

《기어이 성공합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며 령도자의 믿음을 받아안은 전사에게는 결사관철만 있다는것이 그가 간직한 신념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당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새겨안은 삶의 진리였다.

※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평양의 밤하늘가에 찬연히 새겨지던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발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빛나는 조국》, 그것을 새긴 주인공들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신 영광의 그 시각에도 5월1일경기장밖에서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무인기들을 피워올릴 때 살붙이에게 부탁하듯 그리운 원수님께 우리 마음 아뢰주렴 하고 눈물속에 외우던 그들이였다.

백수십대의 무인기들의 비행조종프로그람을 보란듯이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세인을 놀래운 그들은 까치무리가 막 쫓아다녔다는 진짜 《참매》를 만들어내놓은 전도양양한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다. 또 하나의 과학의 초행길을 자신만만하게 열어놓은 그들은 신심에 넘쳐 말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명을 무인기로 새길데 대한 통지는 우리 원수님께서 주신것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걸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진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창조과정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이 더 높이 성장한 과정이였으며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의 애국심에 떠받들려 세계우에 우뚝 솟음 강대한 조국의 래일을 확신한 나날이였다.

빛나는 조국, 그 빛은 백옥처럼 재끗하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한 위대한 우리 인민의 마음이 뿜은 충정의 빛, 일심단결의 빛이 아니겠는가.

당이 바란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우리 인민,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이 빛나는 조국을 받들어올린것이다.

위대한 당이 키운 위대한 인민은 위대한 조국을 노래한다.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본사기자 조 향 선

에네르기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자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와 그 리용전망

목란광명회사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풍력과 태양빛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있는 자연에네르기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특별히 끈것은 계통병렬형역변환기술을 도입한 태양빛발전소였다. 공장에서는 목란광명회사 기술집단과의 창조적협조밑에 이 발전소를 건설해놓고 그 운영을 잘하여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고있으며 일부 남는 전기는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있었다.

우리는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서 의의를 가지는 태양빛발전체계를 이 공장에 도입해준 목란광명회사의 일군들과 개발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의 개발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싶다.

부사장 한영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손길아래 강화발전된 우리 단위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든든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전력생산기술의 개발도입에 큰 힘을 넣어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년간 태양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단위에서는 년산 수만kW능력의 박막형과 다결정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을 정연하게 갖추어놓은데 이어 그 리용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는 세계적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계통병렬형태양빛역변환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하여 태양빛발전소건설의 핵심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장치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하고있다.

소장 김광남: 계통병렬형역변환기술은 태양빛발전체계들을 국가전력망과 병렬로 련결하여 전력생산과 리용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실용적가치가 큰 기술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전력생산과 리용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발전체계는 기관이나 가정들에서 태양빛전지판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가운데서 쓰고 남은것을 국가전력망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한마디로 전력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데 계통병렬형전력생산체계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

기자: 계통병렬형전력생산체계가 지난 시기 태양빛발전체계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부원 김충길: 일반적으로 태양빛발전체계에는 독립형과 계통병렬형 두가지 형태가 있다. 독립형인 경우 태양빛전지판에서 생산된 전력은 축전지에 충전되였다가 리용된다. 때문에 이 발전체계에는 반드시 축전지가 요구되는데 그 구입과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는 국가전력망과 련결되여 운영되므로 축전지가 필요없다. 따라서 종전보다 그 도입에 드는 초기투자를 절반이상 낮출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가전력망의 임의의 위치에서 련결할수 있어 태양빛조건 혹은 각이한 환경에 맞게 여러곳에 분산시켜 설치할수 있다. 지난 시기에는 태양빛발전소를 정전을 가상하여 설치하고 정전이 되지 않으면 요구되는 전력을 전부 국가전력망에서 받아 리용하였지만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를 설치하면 부족되는 량만큼 받아들이므로 국가로부터 전송받는 전력량을 줄일수 있다.

부원 김충성: 그 우월성은 태양빛전지판의 리용효률을 최대로 높인데도 있다. 독립형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축전지가 만충전되면 태양빛전지판에서 전력이 생산되지 않지만 이 계통병렬형발전체계를 구성하면 태양빛전지판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게 된다.

또한 설치된 모든 계통병렬형태양빛역변환체계들이 국가전력생산에 직접 참가한다는것이다. 이전에 리용하던 독립형체계들은 국가전력망과 무관계하였다. 그러나 계통병렬형발전체계가 설치되면 국가전력망과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어 건축물의 미학적효과를 나타내는 마감건재의 역할도 수행한다.

투자 대 효과성측면에서 볼 때 지난 시기 마감건재로 쓰이던 색유리에 비해 원가가 절반이상 낮으면서도 전력을 생산하는것으로 하여 지금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부사장 한영윤: 우리는 경제적의의가 큰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체계의 도입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 그 실현을 위하여 두뇌전, 기술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기자: 앞으로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태양에네르기개발과 도입사업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바란다.

본사기자 심학철

농촌진지강화를 비약의 무기로 틀어쥐고

연안군 풍천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연안군 풍천리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농촌진지를 강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농촌리당사업에서 중심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것입니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초급일군대렬을 잘 꾸리는 한편 그들의 실력을 높여주는것을 농촌진지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 보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다.

이 문제가 리당위원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상정된 계기가 있었다.

송은철리당위원장이 당의 신임에 의해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이다. 제10작업반의 한 농장원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제의는 뜻밖이였다. 다른 농장으로 보내달라는것이였다.

그와 헤여진 후 리당일군은 원인을 알아보았다.

작업반장의 사업작풍과 일본새에 문제가 있었다. 성격이 거칠어 농장원대중의 호평을 받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리당일군은 초급일군들의 전반실태를 료해해보았다.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초급일군들이 또 있었다.

농사일에 박식하지 못하다나니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초급일군이 있는가 하면 농장원대중과 호흡을 같이하지 못하는 초급일군도 있었다.

그러니 농사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였던것이다.

리당일군의 가슴은 남덩이를 때단듯 무거웠다. 이것을 단순히 몇몇 초급일군들의 일본새에 국한된 문제, 실무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였다.

리당일군의 결심은 굳어졌다.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자.)

이렇게 되여 리당위원회일군들의 모임에서는 초급일군대렬을 강화하며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즉시 이를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리당일군들이 초급일군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이끌어주는 한편 핵심력량을 키워내는 사업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리당위원회에서 제대 군인들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청년들을 공부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일부 일군들이 이 문제만은 고려하였으면 좋겠다고 제기하였다. 가뜩이나 로력이 긴장한 때에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나 보내면 농사는 누가 짓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만큼 바쁜 농사철에 로력자 한명한명이 차지하는 몫이 컸다.

하지만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면 멀리 앞을 내다보며 핵심을 키우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리당일군은 청년들의 등을 떠밀었다.

이때부터 리에서는 해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는 수가 늘어났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제9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을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청년분조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리당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에 고무된 제9작업반의 청년분조원들은 맡은 일을 잘하여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리안의 청년들속에서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와 2명의 국가수훈자가 배출된것을 비롯하여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있다.

리당위원회가 한해두해 꾸준한 노력이 있어 농장의 초급일군대렬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리당위원회의 관심속에 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제는 농장의 기둥감들로, 농촌진지를 대를 이어 떠메고나갈 기수들로 자라났다.

사상교양거점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수많은 농정지가 번듯이 정리되였으며 해마다 알곡수확고를 세계적으로 높여 몇해전부터는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농장으로 되였다.

일찌기 당에서는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려야 당의 농업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우리 당의 정치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오늘 풍천리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되여가고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농촌진지강화를 단위발전의 무기로 틀어쥐고 헌신의 자욱을 남모르게 새겨온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김혁철

석탄가스화에 의한 자체발전체계 확립

강서전기기계공장에서

최근 강서전기기계공장에 설치된 가스혼합식발전체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자체발전체계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큰 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생산과 경영활동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보장해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꽹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하지 말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전기기계들을 생산하는 공장의 전력소비량은 적지 않다. 각종 공작기계들과 열처리설비들을 비롯하여 부하가 큰 생산공정들에 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 시기 디젤발동발전기를 보충적으로 리용하군 하였다.

그런데 연유소비량이 적지 않은것이 문제였다. 생산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새로운 전력생산방식을 도입하여야 하였다.

방도를 찾아 사색을 거듭하던 공장일군들은 각지에서 적극 도입되고있는 석탄가스화기술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가까이에 탄광이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김우연동무를 비롯한 상급기관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공장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며 보다 능률적인 발전체계의 도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자체발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압축비가 달라지는데 맞게 피스톤과 실린더를 비롯한 중요부분품들을 새로 제작하고 점화계통을 설치해야 하였다. 그러자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야 하였다.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없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고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이바지할수 있지 않는가.

이런 각오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석탄가스화실현에 달라붙었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시험에서 실패하여 고심한 나날도 있었고 철판과 강재를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해결을 위해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이 나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이들은 불과 몇달이라는 기간에 혼합식가스동력에 의한 발전방식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 발전방식이 가지는 우점은 우선 기관을 개조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도입할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종전방식에 비해 전력생산량을 훨씬 높이면서도 질좋은 전기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지금 자체로 전력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리명기지배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전력문제를 자체로 풀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본사기자

해주객화차대에서 화차수리속도를 높인 비결

최근 해주객화차대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화차수리에 받아들여 분국적인 수송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로 창안제작한 축주잡는지구는 화차수리속도와 질을 높이는것은 물론 적지 않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는것으로 주목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객화차대에서는 화차축주수리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활차형식의 기중기를 리용하였다. 이런 경우 단번에 많은 화차수리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리설비가 제한된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시간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되고있었다.

품이 많이 드는 이 작업을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토론해보았다. 그 과정에 수리중대 용접소대장 홍명복동무가 축주잡는지구를 만들어 수리속도를 높일수 있는 착상을 내놓았다.

화차의 아래부분을 고정하고 나사식자끼의 원리를 리용하여 축주를 밀어주는 이 지구는 설비제작원가가 적고 2명의 로력으로도 손쉽게 다룰수 있어 리용하기가 편리하였다. 또한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단번에 많은 화차를 동시에 수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에네르기절약의 측면에서도 실리가 있었다.

새로운 수리지구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만들어본 경험도, 참고할만 한 자료도 부족하였지만 이곳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끝끝내 이 지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지금 객화차대에서는 긴장한 전력보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두줄기계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혁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생산장성의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또한 생산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기술력량과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일군은 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 여러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생산능력을 높이고 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가성소다생산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도록 하고있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대담하게 착상하고 풀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장명일

국토관리사업에 력량 집중

자강도에서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근 10만㎡의 포장도로보수와 근 20㎞의 도로포장공사, 수십㎞의 강하천제방보수공사를 한것을 비롯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 도로기술개건 및 보수, 강하천정리, 삼림집건설과 보수, 환경보호를 비롯한 국토관리전반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를 내오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로기술개건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흥주지구 도로기술개건공사, 그 주변정리에 동원된 도급기관들의 일군들과 도도로건설려단, 강계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로폭을 넓히고 콩크리트포장공사를 하면서 옹벽공사, 사방야계공사, 잔디심기, 도로주변정리를 비롯한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그리고 흥주지구의 근 7.5㎞의 도로폭넓히기와 수천㎡의 강기슭석축공사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였다.

희천시에서는 도로기술개건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2000㎡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다.

만포시, 초산군, 전천군, 자성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명길구배낫추기, 곡선펴기, 도로폭넓히기, 로반다지기 등을 힘있게 내밀었다.

강하천정리와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였다.

시, 군들에서 장자강, 압록강을 비롯한 크고작은 강들의 제방보수와 호안림조성전투를 진행하였다.

강계시에서 중심지구 수십동의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보수와 피치포장공사를 하였다. 또한 곳곳에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들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꾸리고 거리와 마을, 공지들에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특파기자 김순홍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 전시회

제29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돌아보고

얼마전 평양지하상점에서는 제29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수는 5600여종에 17만여점으로서 지난해보다 3000여종에 9만여점이나 더 많았다.

지난 시기의 전시회와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품종수가 대폭 늘어난것으로 하여 전시회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기쁨은 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어느 전시대부터 돌아볼지…

이것은 남의것 부럽지 않은 우리의 소비품들이 전렬대를 빽빽히 채운 전시장에 들어서는 참관자들모두의 심정이였다.

우리가 만든 고급내의, 신발, 가방, 식료품 등 갖가지 소비품들을 고르고고르며 참관자들은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가 날로 커간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대외경제성에서 일하는 강원심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소비품전시회지만 수입산 제품들을 당당히 밀어내는 우리의 질좋은 제품들을 보면서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듯해집니다.》

그 어느 전시대라 할것없이 흥성이였다.

식료품전시대에서 누구는 《선흥》제품이 제일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송도원》제품이 제일 좋다고도 했다. 품종이 다종다양한 화장품대대에서도 많은 녀성들이 《은하수》와 《봄향기》제품들을 고르느라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피복제품전시대도 마찬가지였다. 락랑봉화피복공장에서 전시한 내의류, 속옷들이 질이 높아 인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룡라도지도국 애국희종락피복공장에서 만든 지은옷들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에서 출품한 녀자2색장화,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2색벽지,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내놓은 타올수건, 도시경영성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출품한 말린꽃제품 등 많은 소비품들이 인민들의 아낌없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기료품분공장에서 내놓은 구력지손잡이는 좀안에 드는 자그마한 세소상품이였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가는 인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에서 착상하고 개발된것으로 하여 누구나 감탄하였다.

성, 중앙기관 생활필수품생산단위들과 각 도지방공업관리국에서 출품한 소비품전시대에서도 참관자들의 물결이 그칠줄 몰랐다. 생활의 구석구석에 절실히 필요한 세소상품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다. 특히 전자공업성과 화학공업성에서 출품한 자동증기다리미와 여러가지 용도의 수지일용제품들은 쓰기 편리하고 질이 좋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함경남도지방공업관리국 기술준비소와 성천강가방공장에서 출품한 리탄가마, 바퀴달린 려행용가방은 전시회 첫날부터 수요가 대단히 높았다고 한다.

선교구역 산업1동 4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은 말했다.

《우리 제품들이 하나같이 멋있고 질도 좋아 어느것을 살지 망설이게 됩니다. 신발, 가방을 비롯하여 우리 원료, 자재, 설비로 만든 소비품들이 가격도 눅고 질도 좋습니다.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전시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의 경공업제품들이 다종다양해지고 그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또 다르다는것이 참관자들의 일치한 평가였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참가자들의 경쟁의욕은 더한층 높아졌다.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소비품생산을 진행하여왔지만 인민들의 수요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곧 소비품생산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어떻게 하나 자기 단위 얼굴이 뚜렷한 제품생산으로 인민들의 신용을 얻고 제힘으로 생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만장약되여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생기는 차이였다.

하기에 이번 전시회기간 참가자들의 경험교환, 기술교류는 매우 활발히 벌어졌다.

신발생산단위 참가자들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용을 얻고있는 류원신발공장제품을 놓고 도안창작으로부터 기술준비, 생산도입에 대한 경험을 배우기도 하였고 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끈 서천해동공장의 겨울신발제품에서 보다 새로운 착상을 가지기도 하였다.

신의주법랑철기공장 기술과장 최경철동무는 이번에 출품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과정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할 목표를 내걸고 모두가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는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가까운 앞날에 자기 공장 제품도 질경쟁에서 당당히 앞서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 번영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것을 그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안은 뜻깊은 전시회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명천메기종어사업소건설 마감단계

함경북도에서

명천메기종어사업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명천메기종어사업소건설이 완공되면 해마다 많은 새끼메기를 대량생산하여 도안의 시, 군들에 공급하게 된다. 또한 얼태붕어와 미꾸라지양어도 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용출량이 큰 명천지구에 메기종어사업소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몸소 형성안까지 보아주시며 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함경북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명천메기종어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울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콩크리트구조물공사가 빠른 시일안에 결속되고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이와 함께 요성초등무를 비롯한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현장지휘부와 시공력량을 보강하는 한편 도안의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수한 기능공들을 선발하여 건설장에 파견하였다.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명천군, 길주군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갔다.

명천군과 길주군의 녀맹원들은 힘있는 경제선동과 로력적지원으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족되는 부분품들을 해결하면서 전력계통공사에서 성과를 올리였다.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였다.

10여동에 달하는 건물건설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또한 수백m의 울타리가 뻗어가고 수백㎡의 구내길이 포장되였다. 온천을 끌어들이기 위한 콩크리트구조물과 관로망공사가 끝나고 시운전이 진행되였다.

앞으로 명천메기종어사업소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리은남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여 인민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자

제약공업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될 드높은 열의

평양제약공장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빛내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평양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몸소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꾸리고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평양제약공장현대화와 흥남제약공장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평양제약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의 중심,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개건현대화공사지휘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연건평이 수천㎡나 되는 신약직장건물을 비롯하여 10여개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다. 또한 단계별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설비들의 제작, 개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통합생산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신약과 고려약을 배합하여 제약공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약품, 상비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많이 생산하며 상비약들을 용도에 맞게 쓸수 있도록 더 세분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약품가지수를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도토리농마영양알 등을 개발생산한데 이어 녀삼위염알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의학연구원과의 련계밑에 연초성니코틴린을 비롯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규격화하고 용도에 맞게 세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척시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한편 약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위생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약공장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신약제제연구실, 고려약제제연구실, 포장재료연구실로 꾸려진 공업기술연구소를 새로 조직하고 과학기술보급실자료기지에 의약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3만여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을 더 보충하여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고있다.

또한 창고에 보관되여있는 원료들에 대한 재검사와 함께 공정별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한편 3자검사체계를 철저히 지켜 의약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약품분석에 필요한 녹음점측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분석설비들과 분석기구, 100여종의 분석시약과 분석표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신약생산공정과 고려약생산공정에 수만㎥능력의 공기정화체계와 정수생산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포장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과 함께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상표도안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잘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장에서는 상표도안실을 꾸리고 약품상표도안을 전문으로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속에서도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여러가지 형태의 약병형태규격을 새롭게 확정하고 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공장에서 생산된 용기들에 대한 세척과 소독공정을 현대화하고 신약직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포장공정을 효률선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제약공업발전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심장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은 전국의 제약부문 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새로운 성과에로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평양제약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이룩한 성과에 자만할 여념이 없이 개건현대화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인민보건발전의 선결조건

◇ 오늘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사회주의영상인 인민보건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 올라설수 있는것이다.

올해 정초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부문에서는 자립화,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을 올해투쟁목표로 걸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현대화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며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인 동시에 보건발전의 선결조건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을 지을수 있듯이 의약품과 의료기구가 원만히 보장되여야 우리의 보건제도가 굳건해지고 그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약공업부문과 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는것은 단순히 치료예방사업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피부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혁명사업이다.

우리에게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굳건한 화학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이 있다.

◇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양제약공장과 묘향산의료기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내고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부문 공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비약의 천리마를 타고 우리 나라의 보건부문, 의약품과 의료기구공업부문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제약공업부문에서는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약품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그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의료기구공장들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자동화, 현대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년차별,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면서 강하게 추진시켜 우리 나라의 의료기구공장들을 선진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훌륭한 의료설비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들로 전변시켜야 한다.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하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움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

효능높은 의약품을 우리의 기술로

약학연구소 첨단기술제품개발실에서

약학연구소 첨단기술제품개발실의 연구사들이 인삼의 약리활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효능높은 생물활성인삼수액을 연구개발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인삼은 약효능이 높은 보약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 또다시 밝혀진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인삼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 및 물질대사계통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항암작용과 함께 정상혈압을 유지하며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여 기억력을 높여주는 등 이름난 특효약재, 으뜸가는 강장제라는것이 더욱 뚜렷이 증명되였다.

김광혁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사들은 집체적힘을 합쳐 각종 암성질병과 수술후 및 병후쇠약, 출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저하된 면역기능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생물활성인삼수액을 만들어내놓았다.

첨단생물공학기술과 분리기술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체내에서 인삼사포닌의 약리활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새로운 성분을 제조분리하는데 성공한 이들은 그것을 원료로 하여 생물학적리용능이 높은 정맥수액제로 제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풍부한 약초를 가지고 효능이 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이 새로 만들어낸 생물활성인삼수액은 여러차례에 걸친 약리실험과 림상검토를 통하여 다른 일반인삼사포닌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비해볼때 암세포증식억제작용을 비롯한 항암작용과 면역조절작용이 2~3배나 더 높다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

미생물연구소에서

의학연구원 미생물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질좋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연구소의 첨단기술제품개발실에서 연구개발한 복합열불간염알약은 치료효과가 뚜렷하고 치료기일도 훨씬 단축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미 특허증서를 수여받은 복합열불간염알약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전람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인기있는 특허제품이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돼지열과 생당쑥, 록두와 대황 등 천연약재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약은 강한 열불내기작용과 함께 해독, 위액 및 쉬액분비를 촉진하고 소화기계통의 장기들의 작용을 균형적으로 조절하는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한다.

독물이악, 오줌내기약, 간장염약 등으로 잘 알려져있는 천연약재들에서 추출, 농축의 방법으로 필요한 성분을 분리하고 그것을 법제하여 만든 이 약은 급성 및 만성간염, 췌장염, 위염과 간경변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효과가 뚜렷하여 림상실천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실장 리경만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사들은 우리의 새로운 약초자원을 적극 찾아내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효능이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오랜 기간의 고심어린 연구끝에 원료로부터 시작하여 그 제조방법에 이르기까지 100% 우리의 힘으로 실현한 효능높은 의약품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금성 및 만성간염, 간경변증치료에 특효인 복합열불간염알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완치률도 높다고 한다.

본사기자

방문기

자력갱생의 숨결 높뛰는 일터

◎ 송림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을 찾아서 ◎

업마련 우리가 찾았던 송림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은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울려나오는 창조와 생산의 동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일 잘하고 전투력있는 집단, 의료기구생산부문에서 당당히 앞서나가는 보배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생산정상화의 드세찬 동음은 그대로 제힘을 믿고 떨쳐 일어나 전진해나가는 자력갱생의 강자들이 부르는 투쟁의 노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증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정문에 들어서니 여러가지 색갈로 산뜻하게 단장된 건물들과 특색있게 꾸려진 휴식터, 갖가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정원화된 구내 등 모든것이 보건부문의 공장답게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면서도 정갈하게 꾸려졌다는것이 잘 알렸다.

종업원의 대부분이 영예군인들인데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는 우리의 말에 리세일지배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힘은 좀 들었지만 우리 손으로 일터를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해낼수 있는 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이야기였다.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건물들을 개건하고 후생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등 공장현대화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부족되는 자재를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장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닌 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측조도 하고 미장도 하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는 속에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새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장현대화의 나날들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우리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작업반들이 있는 생산건물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안이라고 건물안의 모든 요소들도 보건의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꾸려져있었다.

지난 10여년동안 인민경제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생산환경에 대한 보건성적인 보여주기사업도 해마다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배인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힘을 합쳐 자체로 제작했다는 사슬기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 사슬기를 리용하면서부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시기 공장이 거둔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하여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석고붕대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우리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리용하는 침실들과 종업원들의 휴게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정녕 보고 듣는것마다에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니고있는 주인다운 일본새와 일터에 대한 애착, 자기 힘으로 전진해가는 자력갱생의 숨결이 맥박치고있었다.

가슴뿌듯하게 하는 그 거세찬 숨결과 더불어 공장의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좋을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현대화공사 힘있게 추진

평양지과위생용품공장 치솔직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총건축공사량의 90%계선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리는 한편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설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도록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는것과 함께 표준공법들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현재 각종 건구설치작업과 내부벽체들의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활기있게 진행되는 선동사업과 현장지휘부일군들의 능숙한 작전지휘, 대외건설지도국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전투장은 불도가니처럼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총건축공사량의 90%계선을 돌파한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가까운 앞날에 건축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공장에서 — 정상화하고있다. — 의료용산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 리명철 적음

제49차 예술인체육대회 진행

제49차 예술인체육대회가 9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영화, 무대, 미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씨름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다.

문화상 박춘남동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동지, 관계부문,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다.

체육대회는 참가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시작부터 활기를 띠였다.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의 나날에 꾸준히 련마해온 높은 체육기술과 강한 조직성, 규률성,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아름다운 률동과 힘있고 박력있는 동작들을 펼쳐보이는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는 대회분위기를 이채롭게 해주었다.

서로의 승부심속에 치렬하게 벌어진 구기종목경기들에서 선수들은 각이한 쳐넣기와 맵짠 강타, 먼거리먼저넣기 등 재치있는 기술수법들을 널리 활용하였다.

민족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도 열기띤 응원속에 벌어졌다.

미술부문팀과 무대부문팀사이의 축구경기는 체육대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팽팽한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득점의 문을 열기 위해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였으며 빠른 련락과 속공, 빼돌기, 대담한 중장거리차넣기를 비롯한 훌륭한 경기장면들로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기세를 올리며 승부를 겨룬 두 팀사이의 경기에서는 미술부문팀이 이겼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무대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제49차 예술인체육대회는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관철에 적극 떨쳐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전투적기백과 랑만에 넘쳐 주체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11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4.25체육단, 수산체육단, 룡남산체육단, 월봉산체육단, 중앙체육학원 선수들사이의 수영경열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제2차 전국산림과학기술전시회 진행

제2차 전국산림과학기술전시회가 6일부터 9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산림조성과 보호부문, 산림정보기술부문, 산림기계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림업성을 비롯한 과학교육부문과 산림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소조원, 현장일군 등이 내놓은 전시품들과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전시회기간 발표회와 학술토론회도 진행되였다.

전시회에서는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강원도양묘장 통합생산체계》,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지원체계》, 《수지를 리용한 우리 식 해카린발생산공정에 대하여》 등의 전시품들과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9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교육자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 참가자들에게 컵과 증서들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의 묘소에 화환진정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9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있는 그의 묘소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리용선총재를 비롯한 국제태권도련맹의 주요성원들,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 무도관계자들, 해외동포태권도인들과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유가족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최홍희선생의 묘에 국제태권도련맹, 조선태권도위원회,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해외동포사업국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정통태권도를 과학적인 무도로 발전시키고 전인류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친 최홍희선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협동벌의 미더운 초급일군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장 리은희동무는 구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범적인 초급일군들중의 한 사람이다.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는 작업반장, 언제나 작업반원들을 한식솔처럼 대하고 따뜻이 돌봐주는 다심한 인정미를 지닌 초급일군…

이것이 그에 대한 작업반원들과 농장, 구역일군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여서라도 당의 신임과 기대에 높은 알곡생산실적으로 보답하리라.)

그는 몇해전 작업반장사업을 시작하면서 굳게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새벽이슬도 남먼저 맞고 밤잠도 남보다 적게 자면서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그의 이신작칙은 작업반원들을 알곡생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천백마디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였다.

또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 좋은 경험들을 작업반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과학농사열풍이 온 작업반에 일어나게 하였다.

작업반원들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애로들과 부족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늘 마음을 쓰는 그의 친누이, 친언니다운 심정은 농장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되면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는 법이다.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구역적인 작업반별순위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오늘도 리은희동무는 쌀로써 당을 받드는 애국농민으로 한생을 빛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작업반포전에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불같은 일념안고

거목과 뿌리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은 제철에 관계없이 나무모를 보장할수 있는 굴지의 나무모생산기지이다. 해마다 그리했듯이 올해에도 이곳에서는 백여종에 수백만그루에 달하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온 나라에 퍼치였다.

누카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중앙양묘장 종업원들.

지금은 양묘부문에서 종자채취가 한창인 계절이다.

우리가 중앙양묘장을 찾았을 때에도 종업원들이 나무종자채취를 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국수인 소나무를 온 나라에 더 많이 퍼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소나무종자채취가 한창이라며 기사장 박만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소나무를 많이 심어 자래우려고 합니다. 소나무처럼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수종은 드뭅니다. 하지만 나무모키우기가 헐치 않습니다.》

그는 제대된 후 33년째 양묘장에서 일하고있었다. 그 기간에 그가 심고 가꾼 나무만 해도 수십만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키우기는 힘들어도 남다른 보람과 긍지가 있다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농사는 애벌김매기로부터 시작하여 네벌김매기까지 하면 풍작을 내다볼수 있다지만 나무모를 키우는 일은 한해에 열두번 김을 매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만큼 나무모를 키우는 일은 한순간도 헛눈을 팔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게다가 봄내여름내 땀흘려 지은 농사는 가을에 기쁨을 맛볼수 있지만 수년, 지어는 수십년이 지나서야 키목으로 자라는 나무는 순결한 량심이 없이는 자래울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만범동무는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정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고 나무모 가꾸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자랑도 터놓았다.

군대나간 아들을 내놓고는 온 집안이 양묘장에서 일하고있는 윤문선동무의 가정이며 안해와 딸과 함께 온 나라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할 애국의 마음안고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제3작업반 당세포위원장 김윤길동무, 두 딸과 함께 양묘청년작업반에서 일하면서 수십년동안 쌓아온 높은 기술과 경험을 새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있는 류광호동무, 그날계획을 하기 전에는 현장을 뜨지 않는 완강한 실천가인 제1작업반 반장 리명하동무…

우리는 양묘장 과학기술부원 조남진동무의 자랑도 들을수 있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양묘장에서 일한지 몇해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 나날에 나무모생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방울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발명가가 되였다.

그의 이 발명의 우점은 많은 물을 절약하면서도 나무모의 종류별, 생육단계에 따라 물주기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할수 있다는것이다.

지금도 그는 양묘장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로 꾸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과제를 말아안고 정열을 기울이고있다.

꿔니꿔니해도 과학기술의 안받침이 있어야 나무모를 잘 키우고 자래울수 있다며 그는 모든 종업원들이 한주일에 한번씩 진행하는 작업반별기술학습을 중시하고있다고, 양묘장직으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아마 다음번에는 로동자발명가를 만나볼수도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양묘장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기사장 박만범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또 한겨울 나면 숱한 나무모들이 우리 양묘장을 떠나 온 나라 방방곡곡의 거리와 공원, 산발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때가 우리 양묘공들에게는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

누구나 쉽게 맛볼수 없는 긍지와 보람을 안고 일터를 지켜가는 중앙양묘장의 종업원들.

본사기자 오은별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간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양묘장이 전하는 사연

초산화학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는 전군중적운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군내주민들의 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초산화학공장에는 수많은 아카시아나무들과 참대버드나무들이 키돋음하며 자라고있는 양묘장이 있다.

지배인 김용익동무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 양묘장이 생겨난것은 몇해전이였다.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아안은 그날 한자리에 모여앉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라할것없이 초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되새겨보며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이 어찌 국토부문 일군들이나 산림감독원들의 일이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이런 마음을 안고 그들은 양묘장을 꾸려놓았고 거기에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묻어나갔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나무모를 키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모두가 나무모키우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놓고 토론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애로와 난관은 많았지만 푸른 숲 우거질 고향땅의 래일을 그려보며 모든것을 강인히 이겨내였다.

나무를 가꾸는 일에서는 양묘공이 따로 없었다.

고온현상이 지속되던 지난 8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사무실에서 다음날사업계획을 세우고있던 김용익동무는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양묘장주변에 전지불들이 번쩍거리고있었다.

양묘장으로 급히 걸음을 옮기던 그는 무춤 멈춰섰다. 퇴근했으리라고 생각했던 종업원들이 양묘장에서 물주기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당세포위원장이 다가서며 하는 말이였다.

이렇게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에 매일 밤낮도록 물주기를 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하나의 일과로 되어버렸다.

혹심한 고온속에서도 파릇파릇 새파란 잎새를 펼치는 나무모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그들이 자래운 나무모들은 결코 9정보의 담당림에만 뿌리를 내린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뿌리를 내려 향토애를 더욱 뜨겁게 하여주었다.

고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빨래비누를 마음먹은대로 광광 생산할수 있게 된 성과속에는 고향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가려는 마음들이 소중히 깃들어있는것이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비껴있는 양묘장을 바라보면서 굳게 믿었다.

한그루 나무에도 헌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묻어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초산군의 산들마다에 푸르름이 짙어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신철

성실한 애국의 마음

룡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한청기동무

성실한 애국의 마음의 창성이깔나무와 세일소나무, 참대버드나무묘를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 작업반의 나무모관리에 필요한 전정가위를 새로 마련하는 등 지혜도 아끼지 않았다.

오늘도 한청기동무는 군의 산들에 푸른 숲 설레이는 모습을 그려보며 하루하루를 애국으로 이어가고있다.

룡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한청기동무는 스스로 군산림경영소 모범양묘장의 양묘공이 되여 나무모생산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다.

몇해전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산림경영소 당조직을 찾아가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자기의 여생을 바칠 결심을 터놓았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출근길》에 올랐다.

수백㎥의 나무모온실에 창성이깔나무와 세일소나무의 종자를 파종하고 참대버드나무삽목을 진행할데 대한 첫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그는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수립은 시대의 요구

세계도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유엔무대에서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가들사이에 불평등과 갈등만을 조장격화시키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수립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력사적과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할것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의 요구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징표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개별적인 국가의 특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유린당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지난 세기의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유지되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현 국제질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일부 특정국가들에만 우선권과 결정권이 부여되어있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질서, 지배와 략탈의 질서이다. 이것은 시대의 전진운동에 저해를 주는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기본요소로 되고있다.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바로 이러한 낡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로 바꿀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유엔무대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계속 상정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현정세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과 관련한 제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인류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자고 하는것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자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난 방안은 진심으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자는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지금 어떠 국제기구들에서는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있다. 유엔만 놓고보아도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반대로 소수의 대국들은 유엔헌장과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고있다.

국제문제들에 대한 토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배제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공공연히 횡행하고있다. 세계는 불안정해지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모순과 대립, 분쟁이 격화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특권을 허용하는 낡은 질서를 없애고 자주권존중과 평등완성,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낡은 경제관계를 깨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

낡은 국제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에 있어서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자주화된 새 세계를 앞당겨오고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이다.

우리 국가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리 학 남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한밤중에 울린 전화종소리

주체54(1965)년 7월 초순 어느날 자정도 훨씬 지난 깊은 밤에 기상수문국의 한 일군의 방에서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무렵 례년에 없는 왕가뭄이 계속되는것이 걱정되시여 걸어오신 전화였다.

날씨가 지금 흐렸는데 어디서 오는 지기압인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일군은 내몽골쪽에서 오는 저기압이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운하신듯 남쪽에서 오는 저기압이 아니구만라고 하시며 이번 저기압이 우리 나라 전반지역에 다 미칠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저기압이 약해 중부까지나 미칠것 같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실망하신듯 곤난하구만라고 하시였다.

순간 송구함을 금치 못하는 일군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기압이 중부까지만 미친다는데 남녘동포들도 밥을 먹어야 할것이 아닌가고, 키기도 두달이나 가물었다고 근심어린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일군은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삼키며 그이께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남쪽저기압이 밀려온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도 보름을 기다리란 말이요? 하루가 새로운데라고 조용히 외우시였다.

남녘겨레들에 대한 생각

주체55(1966)년 여름 어느날 밤 당대표자회에서 하실 보고를 준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준비사업을 하는 일군들의 숙소를 찾아주시였다.

자애에 넘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나오,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요라고 하시며 자신의 무거운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걱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소,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길어가고있소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분렬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깊어가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하시였다.

통일문제로 마음을 쓰시며

주체63(1974)년 여름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마음쓰시며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전화를 받게 된 그 일군은 《수령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소, 나도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푹 자보고싶소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소,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오라고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그려보며 그 일군은 《수령님!》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본사기자

고조되고있는 민족자주기운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 3일 서울에서 자주독립선언대회가 열렸다.

대회준비위원장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고 반미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선반도를 풍요한 터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초불로 반미의 불화를 지펴지고 호소하였다. 대학생당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군사기지의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영구히 이 땅을 떠나며 미국은 북남관계발전을 방해하지 말고 북남협력을 가로막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것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에로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대오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장례식을 상징하는 명구차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글이 씌여진 선전물들이 등장하였다. 행진참가자들은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통일시대 미국은 필요없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부르면서 기세를 올렸다.

같은 날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들이 평택의 미군기지앞에서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사과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 대학생들은 미국을 단죄규탄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대회가 끝난 후 남조선강점 미군의 강제퇴거명령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대학생들과 경찰들과의 치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학생들은 오늘은 비록 미군기지담벽에 강제퇴거명령서를 붙였지만 다음에는 기어이 미군의 강제퇴거를 직접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도 미군철수투쟁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미군 떠나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참가자들이 웨치는 미국과의 《동맹해체》, 《미군철수》의 구호가 가을하늘에 쩌렁쩌렁 높이 울려퍼졌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팔레스티나인학교에 대한 공격행위 감행

팔레스티나통신사가 7일 전한데 의하면 극단적인 이스라엘정착민들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남부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학교에 떠어들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지며 란동을 부렸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학교주변의 살림집과 주민들을 향해 실탄과 고무탄, 최루가스를 쏘아대며 극단분자들의 공격행위를 비호하였다. 그로 하여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 한다.

여러 나라에서의 경제전망과 성과

전력증산계획

에티오피아정부가 7일 전력증산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나라에서는 2025년까지 전력생산능력을 현재에 비해 1 302만kW 더 늘어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전기의 덕을 보도록 할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수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한 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

금생산전망

짐바브웨에서 올해 금생산량이 34t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7일 이 나라 신문 《헤럴드》는 그것은 지난해에 비해 10t 더 많은 량이라고 밝혔다.

사프란수출 증가

이란에서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6개월동안에 105t의 사프란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한것이라고 3일 타스님통신이 전하였다.

농업생산 증대

몽골에서 올해 밀과 감자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7만 2 600t, 4만 4 500t 증대되였다.

5일 이 나라 식료, 농업, 경공업성은 남새와 기름작물, 집짐승먹이풀생산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증가

브라질에서 10월에 대외무역액이 지난해의 같은 달에 비해 17.9% 증가하였다.

이 기간 수출액은 12.4% 늘어났다고 한다.

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은 망동 비난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가로막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허무니없이 헐뜯는 《자유한국당》을 야유조소하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위헌》시비를 걸고있는것은 완전히 생떼이자 억지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는 민중의 뜻이고 력사의 명령이며 여기에 협조하는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은 먼지가 쌓인 폐제묵은 법전이나 뒤적거리며 시시콜콜 따지고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렇게 놀다가는 결국 날이 추워오는데도 도토리를 못 주어 겨울식량을 마련하지 못한 다람쥐신세가 될것이라고 조소하였다.

한편 정의당 대변인은 보수세력 화장놀음에 매달리면서 민심에 도전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에 대한 립장을 밝히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사법롱락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설치를 반대하는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박근혜에게 붙어돌아가는 《극정》롱락세력까지 끌어들이며 몸집불구기놀음에 매달리고있다고 욕로하면서 이 보수야당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장애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원림록화사업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림록화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최근 시원림록화국은 올해에 시적으로 23만무의 나무숲과 록지를 새로 조성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약 70%정도 진척시켰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 나무숲과 록지, 습지면적을 100만무 더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싸이버공격 격퇴

이란통신 및 정보기술상이 5일 자기 나라의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싸이버공격을 좌절시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콤퓨터악성비루스인 《스룩스네트》를 리용하여 이란의 정보통신체계를 파괴하려 하였지만 이 나라 기술력량에 의해 저지되였다 한다.

미국에서 류혈적인 총기류범죄로 약 40명의 사상자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교외에서 7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전 미해병대원이였던 28살 난 청년이 간이식당에 뛰여들어 연막탄을 뿌린 다음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12명을 살해하고 2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나라 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범죄자가 현장에서 30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간이식당은 수백명의 청년들로 만원을 이루고있었다고 한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경축시위 진행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101돐에 즈음하여 7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경축시위가 진행되였다.

시위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지도부성원들과 쏘련군관동맹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레닌과 쓰딸린의 초상화와 이전 쏘련기발, 공산당기발을 들고 《위대한 10월에 영광이 있으라!》, 《레닌의 위업은 영생할것이다!》, 《레닌, 당, 공청!》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거리를 따라 행진하였다.

미국의 제재를 비난

뛰르끼예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국제법에 배치되는 그릇된것이라고 하면서 이 조치들은 세계의 균형을 파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까밝혔다.

제재와 관련한 뛰르끼예의 립장은 시종일관 명백하다고 언명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는 그러한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5일 에스빠냐신문 《엘빠이스》와의 회견에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정계에서 《로씨야》라는 주제창을 적극 활용하고있으며 반로씨야기운을 인위적으로 가열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전지구적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로미사이의 군축조약들이 미국내 정치싸움의 인질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나라들의 대로씨야제재가 미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실시되였다고 하면서 황당무계한 《로씨야의 위협》설은 유럽인들에게 부담을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제재는 로씨야에도 유럽동맹에도 무익한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유럽정치가들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깨닫는것이 중요하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지만 이 방면에서의 첫걸음은 바로 제재를 실시한 유럽동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리아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이 나라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주둔이 국제법에 배치되며 본질에 있어서 주권국가의 일부 령토를 강점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

* *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6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가 이란인민을 직접 겨냥하고있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한 미국을 규탄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어리석은 조치를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는 자기 나라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난관을 극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이 최근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상무성이 중국의 해당 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올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조치를 람용하여 기업들의 정상적인 국제무역과 협조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그릇된 처사를 즉각 중지하며 쌍방의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형편이 악화될것으로 예견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말에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10월에 비해 6.6점 떨어질것으로 예견되고있다.

5일 도이췰란드의 뮨헨에 있는 경제연구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갈피에서

경제위기를 몰아온 튤립거품붕괴

1602년 네데를란드는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디아회사를 내왔다. 이것을 통하여 네데를란드는 동방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로 하여 네데를란드는 유럽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로 되였고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되였다.

그러나 네데를란드는 튤립이라는 꽃때문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튤립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던 시기는 네데를란드에 자본주의경제관계가 형성되던 때였다. 튤립의 원산지가 아시아지역인것으로 하여 유럽땅에서의 재배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씨앗재배는 3~7년이나 걸리였고 1년만에 꽃이 피는 알뿌리재배는 성공률이 절반정도에 그쳤다.

많은 수요자와 적은 튤립, 이것은 튤립알뿌리가격의 상승원인으로 되였다. 더우기 식물애호가들과 원예사들이 여러가지 고급한 새 품종의 튤립을 연구해냄으로써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였다.

귀족들과 부유층들이 저마끔 자기들의 정원에서 아름답고 희귀한 튤립을 재배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에 끼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네데를란드에서 당시 튤립알뿌리가격이 얼마나 비쌌는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있다. 어떤 집에서 딸의 결혼지참품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팔아 튤립알뿌리 1개를 준비하였는데 하인이 양파로 잘못 보고 먹어버린 결과 결혼식까지 파탄되였다고 한다. 또 영국의 한 식물애호가는 네데를란드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갔다가 보기 드문 《양파》를 보게 되였는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껍질을 벗겨본것으로 하여 감옥신세를 지고 금화 2 000개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봉변을 당하였다.

튤립알뿌리는 같은 질량의 금보다도 비쌌다. 희귀한 알뿌리 하나를 사는 돈이면 황소 40마리를 살수 있었고 큰 주택을 마련할수 있었다.

튤립알뿌리가격이 더 비싸질것이라고 타산한 부유층은 경쟁적으로 그 구입에 뛰어들었다. 결과 어떤 새 품종알뿌리의 가격은 한달만에 50배이상 뛰어오르게 되였다. 이것은 최초의 투기거품으로 되였다. 지금도 튤립거품이라는 말은 실제가치를 벗어나 가격이 무모하게 상승한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있다.

네데를란드에서는 투기적목적으로 튤립시장에 몰려드는 자금이 계속 증가하였다. 1634년-1637년에 튤립알뿌리의 가격은 수십수백배로 뛰여올랐다.

거래방법이 다양해졌다. 겨울에 현물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최초의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였다.

튤립알뿌리의 선물거래는 계약서를 만들고 현금이나 집짐승, 가구와 같은 담보물을 맡기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계약서자체도 상품화되여 류통되였기때문에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1637년 2월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던 튤립알뿌리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가격이 너무도 비싼탓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매가 파탄되였던것이다. 소식이 삽시에 퍼지고 튤립알뿌리의 가격은 앙과가격 비슷하게 떨어졌다. 거래에 참가하였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산되였고 자살자들이 생겨났다. 네데를란드가 튤립알뿌리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거래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으며 튤립거품은 붕괴되였다.

투기행위로 인한 튤립거품의 붕괴로 네데를란드경제는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유럽의 금융중심지는 영국의 런던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손 소 연

감출수 없는 일제의 세균전만행

영국의 한 출판사가 일본관동군 731부대에 대한 도서를 출판하였다.

로씨야, 미국, 일본의 조사성원들이 확증한 자료와 중국동북지역에 자리잡고있던 구일본군의 세균무기연구기지에서 새로 발굴된 자료들에 토대하여 이 도서가 집필되였다고 한다. 도서는 세균전, 인체실험 등을 포함하여 일제가 감행한 극악한 범죄행위들을 폭로하고있다.

지난 1월에는 카나다계 미국인영화제작자가 《731》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놓았다.

영화는 집기류에 세균을 바르거나 비행기로 페스트균을 대량살포하는 장면들, 사람에게 독약을 주입하고 인체해부까지 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일제의 반인륜적만행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또한 조선과 중국에서 1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731부대의 범죄적만행을 수록한 자료도 보여주면서 실지 피해자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것이라고 전하였다.

영화제작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슈빙찜수용소에서 나치스가 감행한 대학살만행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 알고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인간살륙만행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이췰란드전쟁광들도 생각지 못한 731부대의 범죄행위는 치법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현시대인들이 과거범죄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인간을 상대로 그러한 범죄가 계속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였다고 강조하였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운 731부대에 의하여 조선, 중국, 로씨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일본작가 모리무라 세이이찌가 731부대에 대하여 서술한 장편실화 《악마의 포식》의 내용의 일부를 보자.

《체포된 한 임신부는 감옥에서 해산하였다. 그 녀인은 자기들이 〈통나무〉(생체실험대상으로 된 사람)로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수들에게 자기는 어떠한 실험을 당해도 좋으니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실험용에미〉는 〈실험용새끼〉만을 낳을수 있다고 하면서 그 녀인의 애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후 어머니도 아이도 다 〈통나무〉가 되여 살해되였다.》

《산 사람을 해부할 때에 직접 칼을 잡는 일은 하급장교와 병사들이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관심을 끄는 〈통나무〉들이 있을 때에는 군의들로 무어진 각 그루빠책임자들이 하였다. 그들은 산 사람을 해부하는것이 범죄행위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그보다도 오히려 매개 그루빠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표본이 차례질것인가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군 하였다.》

《마스크를 끼고 흰 위생복을 입은 〈연구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임의의 시각에 사람들의 육체를 동강냈다.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이 살인악당들에 의해 방금전까지 성성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몇개의 고기덩어리로 변하여 엑체가 담긴 용기속에 잠기군 하였다.》

인간의 탈을 쓴 야만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잔악무도한 범죄이다.

731부대의 끔찍한 만행들은 이미 전범자들에 대한 심문기록과 그 부대에서 복무한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날날이 폭로되였다.

한 전쟁범죄심문기록장에는 인체실험에 참가한 일본군 군의관의 진술내용도 있는데 거기에는 포로의 팔과 다리를 피가 통하지 않도록 묶어 10분만에 죽게 하거나 세균을 주사하여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였으며 폭탄을 터뜨려 포로의 다리를 상하게 하고 진정제를 주사하는 실험을 한 죄행들이 적혀져있었다. 731부대에 근무하였던 대원들도 페스트균을 주사한 중국인의 팔다리를 실험대에 묶고 자갈을 물린채로 12-13분내에 해부를 진행하여 신체에서 장기를 떼낸 다음 그것을 병리실험에 넘긴 사실과 산 사람을 마취도 하지 않고 해부한 사실들에 대해 토설하였다.

일제의 세균전만행은 인류멸살을 노린 특대형범죄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731부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부대가 감행한 범죄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획책하여왔다.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발광하여도 과거에 저지른 만인분죄악을 절대로 감추지 못한다.

일본이 과거죄악을 부인하고 은폐하면서 계속 군국화의 길로 내달린다면 국제사회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박 진 향

미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소고기회수소동

지난 9월부터 미국의 16개 주에서 살모넬라균감염자들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전시기에도 이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였으며 그중에서 사망자들도 생겨났다.

고기, 닭알 및 그 가공품 등이 살모넬라균에 의해 쉽게 감염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균에 의해 감염된 식품을 먹은 사람들속에서 식중독 혹은 급성위장염이 발생하여 열나기, 배아픔,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번에 미국의 16개 주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어느 한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소고기제품을 먹었다고 한다.

미농무성 식품안전검사국은 그 공장에서 생산한 고기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되였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접촉하면 건강상 심중한 문제가 초래되거나 심지어 사망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식품안전검사국의 조치에 따라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수천t의 소고기제품들이 회수처리되고있다.

이러한 회수소동은 이전시기에도 벌어졌다.

2013년 미국내의 5개 주에서 16명이 살모넬라균에 의해 식중독에 걸려 전국에 류통된 많은 량의 소고기가 모두 회수되였다.

2010년에는 식탁동안에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사건이 급증하여 감염자수가 수백명에 달하였다. 원인은 어느 한 공장에서 생산한 닭알을 먹은데 있었다. 당시 이 공장에서 생산된 닭알은 17개 주에 출하된 상태였다. 그때에도 오염된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량의 닭알을 회수하는 소동을 벌렸다.

본사기자

ㄱ-18117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번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